

기아차 임금교섭 질질 끌지말라

파업으로 7월실적 GM대우에 밀려 3위 수도 노조측 본교섭 확정 안해 분규 장기화 우려

올해 임금교섭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시킨 기아차 노조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본교섭 재개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자칫 하무(夏鬮)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기아차 노사가 서로 한발씩씩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6일 ‘2007 임금 노측 교섭단회의’를 갖고 향후 본교섭 재개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조급하게 교섭일정을 갖기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노조의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향후 교섭일정은 지부 정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가까운 시일내에 교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부 정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기 전까지는 정상근무를 하되, 잔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빠른 시일내에 교섭을 진행하고, 정상조업

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노조측의 성의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지난 4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해온 기아차는 2·4분기에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 판매실적에서는 노조의 파업으로 전체 판매순위가 GM대우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역경제계 한 인사는 “재협상 결과가 또 다시 부결로 이어진다면 가까스로 영업흑자로 돌아선 기아차로서는 참물을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수출 차질은 물론이고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사가 이번 주에라도 진지한 만남을 통해 건설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총 8차례의 본교섭을 벌인 끝에 지난달 24일 기본급 7만5천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지만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시 노사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합심 노력 ▲기

본급 7만5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2% 인상) ▲생계비 부족분 150% ▲품질목표(IQS)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53.47%가 잠정합의안에 반대,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이 무산됐다.

한편 현대차는 8일과 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운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을 위한 4, 5차 본교섭을 잇따라 갖는 등 여름휴가 후 노사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12일 올해 임단협 지부교섭 상견례를 가졌으며, 지금까지 열린 교섭에서는 회사의 경영설명과 노조요구안에 대한 배경설명 등이 이뤄졌다. 오는 8일 부터는 노조요구안과 회사제시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올해 현대차 노사협상은 금속노조의 산별 중앙교섭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산별 중앙교섭이 타결되면서 지부교섭에만 집중하면 돼 예상보다는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조기 타결 가능성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朴측 “국정원 동원 추악한 음해공작” 李측 “완전한 날조...정치적 책임져야”

한나라 李-朴 ‘공작정치 의혹’ 정면충돌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은 7일 ‘이 전 시장측이 국정원 간부를 동원해 박근혜 쪽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박 전 대표측 의혹 제기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박 전 대표측은 국정원 현직 간부와 이 전 시장 캠프내 ‘국정원 간부출신 비선팀’이 내통,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을 벌여왔다”고 주장했고, 이 전 시장측은 “삼류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경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후보사퇴 주장까지 거론되고 막말에 가까운 공방도 오가는 등 선거일까지 12일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전은 막판 폭로·이전 투구 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

박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은 이날 선대위 명의의 기자회견에서 ‘최태민 보고서’ 유출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 박모씨를 이 전 시장측과 국정원간 연계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캠프의 핵심 실세들과 (이 전 시장측) 국정원 비선팀이 박근혜 후보를 음해하는 도구로 국정원 현직 간부인 박씨를 활용해 왔고, 박씨가

이 후보에게 줄을 서기 위해 음해공작을 했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영남 출신 K 대학을 나온 국정원 고위간부 K모씨가 박씨의 뒷선 배후라는 제보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캠프에는 오래 전부터 국정원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비선팀이 있었다. 비선팀은 국정원 부서장(국장급) 출신 임모씨, 국정원 과장 출신 손모, 박모, 남모씨와 국정원 국장급 출신으로 S그룹 임원인 박모씨 등으로 구성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을 벌여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가운데 임모씨는 이명박 후보를 독대, 보고할 정도로 이 후보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 박씨가 이 전 시장 캠프의 유세단장을 맡고 있는 박모 전 의원과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면서 “두 사람 사이에 60여 통이 넘는 통화기록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과 국정원 내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울러 “박씨는 이명박 캠프의 핵심 실세인 J의원, K 전 의원, S 전 언론인 등

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일부 인사와 팔프회동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 경선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게 캠프인가, 범죄집단인가, 정치공작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 후보는 깨끗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박형준 대변인은 “박 캠프가 허무맹랑한 소설까지 써가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는 패색이 짙어지고, ‘대학생 금품계이트’의 움직임 수 없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자 위기모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국정원 비선팀 주장은 완전한 허위날조로, 자신이 있으면 모든 실명을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장광근 공동대변인도 “그동안 퍼부었던 수많은 네거티브 공세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원과의 정치공작 공모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식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상 사실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표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장의 노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몸살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몸살로 국무회의 주재 못해

노무현 대통령이 7일 몸살로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알파 우마르 코나레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을 접견하는 오후 공식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몸살로 국무회의에 불참, 한덕수 총리가 대신 주재했다”면서 “AU 집행위원장 접견 등 오후 일정은 정상대로 소화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갑자기 몸살기를 느낀 것일 뿐

이제 그 이상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단순 몸살”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오후 코나레 AU 집행위원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몸살기로 목소리에 약간 힘이 없어 보일 정도이기는 했지만,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레 위원장 접견은 당초 예정보다 5분 정도 길어진 35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좀 쉬시면 될 정도의 몸살”이라며 “표정과 행동 등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예정된 공식일정을 차질없이 모두 소화했다.

노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예정된 행사에 불참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번째. 지난달 9월22일 장기간 해외순방으로 쌓인 피로에 몸살까지 겹쳐 지방순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2003년 9월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 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 행사를 취소한 적은 있지만 당시는 다래끼라는 외관상 이유였다. /연합뉴스

실면서 재테크!
동원2지구 우미린이 그 해답입니다

우미린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우미린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우미린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우미린 우미린 이명박 회장

동원2지구 우미 Lynn

민주당 ‘독자생존’ 체제 정비

원내대표에 최인기 의원 선출

민주당이 김한길 그룹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최인기 의원(사진)을 선출하는 등 독자생존을 위한 당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전남지사와 행자부장관을 지낸 최선의 최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에 선출하고, 최고위원에 손봉숙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또 사무부총장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과 신문식 전 조직위원장, 기획조정위원장에 박경수 전

기조위원장, 청년위원장에 최경주 광주시장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지역위원장에 국창근 전 의원(담양·장성·곡성), 신윤식 전남도의원(고흥), 황병순 전남도의원(보성), 이상선 호남대 초빙교수(합평), 김연관 전 전남도의원(영광)을 각각 임명하는 등 전국 17개 지역위원회를 새로 정비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대변인

이낙연의원 내정

대통합민주당 대변인에 재선의 이낙연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3선의 정동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키로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2년 12월 대선 직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2004년부터 2년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달 24일 대통합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